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이행훈

1. 머리말

한국 근대 유학 분야 논문은 성리학 16편, 양명학 5편, 기타 14편 총 35편을 선정하였다. 주제별로는 철학 21편, 유교개혁론 6편, 문명 담론 4편, 기타 4편으로 분류했다. 성리학 분야는 한주학파와 간재학파에 관한 연구가 증대하였고, 이외에도 노사학파, 화서학파, 연재학파, 면암학파 등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한주 및 간재 학파 연구의 공통된 특징은 경전해석학적 방법론이 높은 빈도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이처럼 다양한 학파의 분화라는 한국 근대 유학사의 특징에 비해, 학파간 비교연구가 본격화될 기미가 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은 학파 문인 집단에 대한 일정 수준의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할 듯하다. 양명학 분야는 예년에 비해 연구성과가 많지 않았다. 박은식의 대동사상 연구가 하나 있고, 정인보 연구가 3편, 조선시대 양명학 연구사 정리가 1편이다. 그런데 정인보론으로부터 그의 교육철학과 조선학연구 그리고 단군신화와 얼 사상을 폴 리쾨르의 '이야기 정체성' 이론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성과다.

이른바 조선학운동의 한 축을 이루었던 상고사에 대한 연구 붐은 동시대 일본에서도 만세일계의 국체 수립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망국의 상황에서 집단적 정체성 유지는 민족의 기원으로부터 모색되었다. 다만 정인보의 단군신화나 얼 사상이 지향하는 세계는 국가주의로 흐르지 않고, 세계 온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는 차이가 있다. 문명개화 담론의 선두주자였던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대한 최근 여러 연구는 그가 서구 문명을 적극 수용하여 문명의 진보를 추구하면서도 배타성을 띄는 게 아니라, 호혜성에 기반한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그

이론적 기반은 유교적 가치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고 평가한다. 유교개혁이나 종교화운동에 대한 연구도 주제가 다양해졌다.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최우선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근대 유교가 걸어온 자취를 살피는 작업은 나름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2. 학문별 분류

1) 성리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우진	화순유학의 전개와 노사학파의 형성	용봉인문논총 56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김용재	毅堂 朴世和 선생의 儒學思想	퇴계학논집 26	영남퇴계학연구원
3	길태은	艮齋의 人物性論 고찰–「中庸記疑」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4	동양철학연구회
4	김현수	『간재선생예설(艮齋先生禮說)』 일고(一考)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5	유지웅·황갑연	간재 전우의 시대인식과 이론적 배경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6	김동민	이진상(李震相)의 춘추학(春秋學)에 보이는 화이관(華夷觀)의 특징(1)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7	성호준	석곡(石谷) 이규준(李圭晙)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이해	退溪學論叢 36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8	최영성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의 성리설과 한국철학사에서의 의미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구회
9	김낙진	이진상의 「심즉리설」에 대한 조긍섭과 전우의 비판	한국철학논집 64	한국철학사연구회
10	김동민	곽종석(郭鍾錫)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 (1), (2)	한국철학논집 65, 66	한국철학사연구회
11	박학래	연재학파(淵齋學派)의 형성과 전개–『계산연원록(溪山淵源錄)』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0	충남대 유학연구소
12	길태은	간재(艮齋)의 「독맹자(讀孟子)」 연구 – 수양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충남대 유학연구소
13	이형성	중헌(重軒) 황철원(黃澈源)의 노사학(蘆沙學) 계승양상 일고 –「태극도(太極圖)」 이해를 통한 리발론(理發論)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2	충남대 유학연구소

14	이현중	19세기 한국 儒學者들의 학문방법론 –한주寒州 이진상李震相과 일부一夫 김항金恒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15	박용태	위정척사운동에 나타난 기호노론(畿湖老論)계의 사상적 갈등과 결집 양상 –노론 시파(時派)와 벽파(僻派)의 융합과 의병장 민종식의 역할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16	박학래	近現代 湖南儒學의 地形과 전개 양상 – 도학계열 문인 집단의 형성과 지역별 분포에 주목하여 –	동양고전연구 78	동양고전학회

한국 근대 유학 가운데 성리학 분야 연구는 양명학은 물론이고 여타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세가 뚜렷하다. 연구 경향도 노사학파, 간재학파, 화서학파, 연재학파 등 학파의 분화와 성립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문인·후인 사이의 저술과 논쟁 분석을 통해 각 학파의 사상적 차이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전체 연구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간재학파가 양적으로 월등했다. 이형성은 기정진의 재전문인 황철원의 사상에서 리발일도설의 경향을 발견하고 리를 중시하는 사유체계를 전개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박학래는 송병선, 송병순 형제를 중심으로 한 연재학파의 형성 과정을 살피는 한편, 19세기 중반 이후 호남을 배경으로 활동한 문인 집단이 노사학파와 간재학파 등에 그치지 않고 최익현의 면암학파, 송병선의 연재학파, 그리고 영남 계열인 곽종석의 면우학파, 허전의 성재학파 등이 근 1백여 년에 걸쳐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되어 학맥 내에는 2만여 명에 육박하는 문인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첫째, 조선후기 성리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심성론에 대한 학파별 이론적 기반을 분석하고, 둘째, 학파 간 논변에서 나타나는 사상적 차이점에 주목하며 셋째, 학파별 지역적 네트워

크 형성에 대한 관심 증대도 확연하다. 지역별 유림네트워크 형성이 근대 유학 연구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유교개혁운동이 지역 유림을 구심점으로 진행된 탓이 크다. 아울러 해당 지역 유학사상을 탐구하는 관련 연구소의 학술활동에도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경전 해석학적 접근도 근대 유학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는 중이다.

조우진은 고려 말에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화순지역 유학의 흐름과 인적 관계망을 살폈다. 기정진은 호남에서 노사학파라는 거대한 지적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그의 수제자 정의림(鄭義林)은 화순 유학의 맥을 이어 많은 문인을 배출하여, 노사학파가 근대 유학 전승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김용재는 경술국치에 순국으로 저항한 박세화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반주지주의 실천철학에 주목했다. 길태은은 경전해석학의 방법으로 전우 사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대학기의』, 『독논어』에 이어, 올해는 『중용기의』와 『독맹자』를 분석·발표하였다. 전우의 『중용』 해석에서는 주자의 성동기이에 기반하여 낙론계열의 인물성동론을 계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맹자』 해석은 '부동심', '구방심', '우산장' 등에 집중하여 존성 중시의 수양론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김현수는 『간재선생예설』을 통해 전우의 예학사상이 주자와 삼례 등을 근거로 율곡학파의 예설을 계승하여 종법 원리를 강조하면서 천리와 인륜의 본연을 강조했음을 밝혔다. 전우는 의병에 참여하지 않고 파리장서 서명도 거부하여 논란을 일으켰는데, 유지웅과 황갑연은 전우의 학문과 사상이, 망국의 원인을 리(성리학)에 전가하지 않고 심본성과 명덕심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수도(守道)와 전도(傳道)의 길을 택한 것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괴리된 것은 아니었다

고 주장하였다. 『춘추』를 오랜 기간 연구한 김동민은 한국 춘추학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연구로 한주학파를 택했는데, 먼저 이진상의 『춘추』 해석이 춘추대의에 입각한 화이의 엄격한 구분과 현실적 변용을 특징으로 하며, 곽종석의 『춘추문답』에서는 청대 고증학의 영향으로 객관성과 실증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발견했다. 한주학파의 사상적 근간인 심즉리설은 타학파는 물론 퇴계학파 내에서도 논란거리였다. 김낙진은 조긍섭과 전우의 심즉리설 비판에서 심을 기로 보는 것은 부정하면서도 심즉리에 대한 주장에서 입장차를 지닌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현중은 김항과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진상의 심즉리설이 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체성 강화에 초점이 있다면 김항은 도 자체에 주목하여 유불도는 물론 서학도 도의 자기 전개로 보아 동서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호준은 이규준의 인심도심설이 이기합체와 심성일물을 특징으로 하여, 형신합일적 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천도인 심과 혈육의 심이 둘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성보다는 심을 도덕의 근거로 삼았음을 분석하였다. 최영성은 이이의 학통을 이은 신득구가 하늘에도 인심이 있다는 주장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던 사실을 통해 하늘의 절대성과 진리의 절대성을 회의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자각과 실천을 강조한 것이, 결국 인간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근대적 사고였음을 제시했다. 박용태는 19세기 조선유학의 노론계 위정척사운동의 갈등이 사상적 대립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홍주의병의 의병장이던 민종식이 당시 기호지역 노론의 학문적 갈등을 수습하고 화이론에 근거한 위정척사의 의병 창의(倡義)에 기여한 사실을 고찰하였다.

2) 양명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정심	근대 동아시아유학 맥락에서 박은식의 대동사상 읽기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전성건	신정인보론: 실심과 실사의 종합	다산학 36	재단접인 다산학술문화재단
3	김윤경	정인보의 교육사상과 민족교육	교육철학연구 42 (1)	한국교육철학학회
4	전종윤	리쾨르의 '이야기 정체성' 이론을 통해 본 정인보의 '단군조선'과 '얼' 사상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5	김세정	조선시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조선시대 양명학 일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한국 근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는 예년에 비해 적다. 박은식과 정인보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양명학 연구사를 정리한 김세정의 발표가 있었다. 박은식에 관해 오래 연구해 온 박정심은 박은식의 대동사상을 동아시아 유학의 맥락에서 읽어냈다.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인 양지를 지닌 근대 주체 기획에서 나아가 한국의 독립을 인도주의의 전세계적 실현 과정으로 보았던 점에서 강유위의 유토피아 구상이나 유인석의 성리학에 기반한 제국주의 비판과 구별했다. 전성건은 정인보의 철학사상을 실심과 실사의 종합으로서의 실학으로 재조명했다. 정인보에게서 실학은 양지로서의 실심이 실사에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학의 재현이 현재에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윤경은 정인보의 교육철학이 본심 회복, 진실성과 주체성, 감응성 회복을 목표로 하며, 교육의 방향은 실심을 통해 주체를 성찰하고 도덕적 감수성을 강화하며 의기(意氣)의 자유로운 발산을 중시하는

데 있었음을 밝혔다. 전종윤은 폴 리쾨르의 '이야기 정체성' 개념과 위당 정인보의 '단군조선'과 '얼' 사상 연구를 비교·분석했다. 리쾨르의 변증법적 방법론은 서로 다른 두 주제나 개념을 부단히 대화·대질시킴으로써 '중용'이자 '제3의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리쾨르의 『기억, 역사, 망각』에서 나오는 '애도 작업'과 '기억 작업'을 모티프로 하여, 정인보의 '단군조선'을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만남이라는 입장에서 재해석하였다. 김세정은 지난 50여 년간 진행된 조선시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모아 〈조선시대 양명학 관련 연구 문헌 목록〉을 학계에 발표하고, 향후 연구의 과제와 전망으로 첫째, 조선시대 개별 양명학자에 대한 연구성과 반영, 둘째, 철학 분야에 치중된 연구를 문학과 사학 분야로 확장하는 것, 셋째, 현재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실마리로서 양명학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3)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상리	근대 유학자 설태희(薛泰熙)의 경전해석과 실천의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지속: 1900년대 수신(修身)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6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3	나종석	주자학과 대동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4	홍성덕	탈유교사회 유림 네트워크 분석 시론	태동고전연구 4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5	김세서리아	『자기록』의 유가경전 언어 인용 양상을 통해 본 조선여성의 지식	한국여성철학 33	한국여성철학회
6	서동일	유림의 만주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설립	숭실사학 45	숭실사학회

7	정성희	식민시기 유학의 재정립을 위한 중산(中山) 박장현(朴章鉉:1908~1940)의 현실인식과 대응논리– '경경위사(經經緯史)'와 '인시창설(因時倡說)'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8	안승우	이병헌(李炳憲) 역학(易學)사상의 신(神) 개념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9	박태옥	개화기 지식인의 주체와 타자 인식–최익현과 유길준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10	이혜경	'직분' 개념으로 보는 유길준의 주권의 원천 –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비교를 통해 –	동양철학연구 101	동양철학연구회
11	안승우	캉유웨이(康有爲)와 이병헌의 『중용』 해석 비교 – 공교(孔敎) 이론의 동이점 고찰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12	정욱재	일제강점기 조선유교회 성격에 대한 재검토	퇴계학논집 27	영남퇴계학연구원
13	이은선	해학 이기의 신인(神人/眞君) 의식과 동북아 평화	유학연구 50	충남대 유학연구소
14	백민정	최익한의 다산학 이해와 그 의미	다산학 36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한국 근대 유학에서 성리학이나 양명학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야 연구가 예년에 비해 증대하였다. 유교개혁이나 문명담론, 근대성 담론으로 엮이는 것 외에도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사상적 전환을 보여준 인물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차미란은 1900년대 발간된 수신교과서를 연구했다. 「윤리학교과서」, 「고등소학수신서」, 「초등소학수신서」 등이 유교적 수신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서구의 근대적 사회사상과 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했음을 밝히고, '유교윤리와 시민윤리의 조화'라는 교육적 과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분석을 시도한 홍성덕의 연구도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눈길을 끈다. 먼저 한국 근대 유학자 개인 문집에서 관계형성자 추출을 시작으로 시계열적으로 사회관계망을 분석함으로써 탈유교사회에서 유교의 본질과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고 현대 사회에서 유교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했다. 김세서리아는 풍양조씨가 지은 『자기록』에서 유가경전이 인용되는 양상을 고찰하여, 조선 여성의 유가경전에 대한 독서지형과 지식-권력에 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대 여성들이 산출한 지식의 다양성을 고찰하였다.

서동일은 1910년대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과 반일운동에 참여한 유림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세력의 사상적 전환을 탐구했다. 김대락과 이상룡은 1905년을 전후하여 개신유림으로 전환하였는데, 특히 김대락이 이상적 공동체의 이념으로 '공리(共理)'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공화주의를 동아시아의 시대정신으로 이해한 것을 '유교적 공화주의'로 평가하였다.

정성희는 박장현의 유교개혁 논리의 핵심을 '경경위사(經經緯史)'와 '인시창설(因時倡說)'로 정리했다. 유학의 경전과 우리 역사를 날줄과 씨줄로 삼고, 학문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전연구와 역사서술을 시도하고, 유교 종교화에 관심을 두며, 서양철학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훈민정음'을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평가하며, 경전의 한글 번역과 보급에 힘쓴 점은 한국 근대 유교의 가교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공교운동을 펼친 이병헌에 대한 안승우의 연구도 꾸준하다. 경학적 접근과 비교 연구를 시도했는데 먼저 캉유웨이와 이병헌의 『중용』 해석 가운데, 성, 중용 개념과 귀신장에 대한 해석을 비교하여 양자의 공교 이론의

동이점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이병헌이 『역경』 해석에서, 마음이 곧 신(神)이라는 논리에 기초하여, 사람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관건으로 인식했음을 밝혔다.

박태옥은 개화기 최익현과 유길준의 주체와 타자 인식의 상이점을 연구했다. 최익현에게 중국은 소중화 의식으로 내면화된 타자였고, 서구 열강과 일본은 내면화할 수 없는 적대적 타자였다. 따라서 도덕적 주체성을 극대화하고 문명의 담지자로서 정도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 대응 방안이었다. 한편 유길준은 진정한 개화는 주체적 각성과 자기 책임으로 타자를 수용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고, 서구의 법과 제도의 문명화 기능은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는 조건이라고 보았다.

이혜경은 서구 개념의 번역과 수용과정에 나타나는 굴절을 탐색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rights'와 'duties'를 '통의'와 '직분'으로 번역했는데, 번역된 '직분'만을 본 유길준은 천부인권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나눠 가진 '인민으로서의 직분'은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천부인권에 바탕한 국민주권은 유길준의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욱재는 1932년 안순환이 설립한 조선유교회가 황도유학으로 일제에 협력했던 경학원과 달리 조선유도회에 참여하지 않고 조선 유교의 도를 수호하려 했음에 주목하여,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식민지 회색지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은선은 호남 유학자 이기가 '신인(神人/眞君)' 의식과 '진교(眞敎)'를 중심으로 한민족 고유의 민족종교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와 주체, 민권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신세계를 구상하였음을 고찰했다.

백민정은 유학에서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편력을 지

닌 최익한의 다산 연구에 대해 고찰했다. 최익한은 다산을 서학자로 호명하였는데, 다산학문의 연원을 서양 근대과학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산 사상을 총평하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지적하였다. 소수 지배층의 권력을 불변적 상수가 아니라 역사적 변혁의 가변적 결과로 인식한 점은 지적 성과로 인정하였으나, 도덕·윤리 영역에서 자주적·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왕정론과 군주론의 사유를 넘어서진 못했다고 보았다. 최익한의 다산학 비평은 사회주의가 한국 근대 유학에 미친 영향과 문제를 환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3. 주제별 분류

1) 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우진	화순유학의 전개와 노사학파의 형성	용봉인문논총 56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김용재	毅堂 朴世和 선생의 儒學思想	퇴계학논집 26	영남퇴계학연구원
3	길태은	艮齋의 人物性論 고찰–「中庸記疑」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4	동양철학연구회
4	김현수	『간재선생예설(艮齋先生禮說)』 일고(一考)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5	유지웅·황갑연	간재 전우의 시대인식과 이론적 배경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6	김동민	이진상(李震相)의 춘추학(春秋學)에 보이는 화이관(華夷觀)의 특징(1)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7	성호준	석곡(石谷) 이규준(李圭晙)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이해	退溪學論叢 36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8	최영성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의 성리설과 한국철학사에서의 의미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구회
9	김낙진	이진상의 「심즉리설」에 대한 조긍섭과 전우의 비판	한국철학논집 64	한국철학사연구회
10	김동민	곽종석(郭鍾錫)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 (1), (2)	한국철학논집 65, 66	한국철학사연구회
11	박학래	연재학파(淵齋學派)의 형성과 전개–『계산연원록(溪山淵源錄)』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0	충남대 유학연구소
12	길태은	간재(艮齋)의 「독맹자(讀孟子)」 연구 – 수양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충남대 유학연구소
13	이형성	중헌(重軒) 황철원(黃澈源)의 노사학(蘆沙學) 계승양상 일고 –「태극도(太極圖)」 이해를 통한 리발론(理發論)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2	충남대 유학연구소

14	이현중	19세기 한국 儒學者들의 학문방법론 –한주寒州 이진상李震相과 일부一夫 김항金恒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15	박용태	위정척사운동에 나타난 기호노론(畿湖老論)계의 사상적 갈등과 결집 양상 –노론 시파(時派)와 벽파(僻派)의 융합과 의병장 민종식의 역할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16	박학래	近現代 湖南儒學의 地形과 전개 양상 – 도학계열 문인 집단의 형성과 지역별 분포에 주목하여 –	동양고전연구 78	동양고전학회
17	박정심	근대 동아시아유학 맥락에서 박은식의 대동사상 읽기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전성건	신정인보론: 실심과 실사의 종합	다산학 36	재단접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9	전종윤	리쾨르의 '이야기 정체성' 이론을 통해 본 정인보의 '단군조선'과 '얼' 사상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20	김윤경	정인보의 교육사상과 민족교육	교육철학연구 42 (1)	한국교육철학학회
21	나종석	주자학과 대동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한국 근대 유학 연구에서 철학 분야 논문은 20편으로 분류했다. 성리학 분야는 한주학파와 간재학파를 위시하여, 화서학파, 노사학파, 연재학파, 성재학파 등 학파별 분화와 사상의 전승을 다룬 연구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학파별 사상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시도는 아직 시기상조인 듯하다. 그나마 한주학파의 심즉리설 관련 논변을 다룬 김낙진과 이진상과 김항을 비교한 이현중이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전우의 경학에 관한 연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한주학파를 통해 한국 춘추학의 가능성을 타진한 김동민의 경전해석학적 접근도 주목에 값한다. 양명학 분야 연구는 예년에 비해 많지 않으나, 정인보의 '단군조선'과 '얼' 사상을 리쾨르의 '이야기 정

체성' 이론을 이끌어 분석한 전종윤의 연구는 신화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밖에 「정인보의 교육사상과 민족교육』은 교육철학이 국학으로 확장되고, 민족정신 고취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이뤄지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정인보의 사상이 조명되었다.

2) 유교개혁론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상리	근대 유학자 설태희(薛泰熙)의 경전해석과 실천의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	정성희	식민시기 유학의 재정립을 위한 중산(中山) 박장현(朴章鉉:1908~1940)의 현실인식과 대응논리– '경경위사(經經緯史)'와 '인시창설(因時倡說)'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3	안승우	이병헌(李炳憲) 역학(易學)사상의 신(神) 개념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4	안승우	캉유웨이(康有爲)와 이병헌의 『중용』 해석 비교 – 공교(孔敎) 이론의 동이점 고찰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5	정욱재	일제강점기 조선유교회 성격에 대한 재검토	퇴계학논집 27	영남퇴계학연구원
6	이은선	해학 이기의 신인(神人/眞君) 의식과 동북아 평화	유학연구 50	충남대 유학연구소

유교개혁론 관련 연구의 특징은 유교종교화운동, 공맹 유학 복원, 조선유교회 활동, 해학 이기의 신인의식 등 연구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근대시기 유교개혁론 대부분이

경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공교운동을 주도한 이병헌은 종교의 실마리를 『역경』과 『중용』 해석에서 찾았는데, 설태희나 박장현도 경전 해석에서 현실 대응논리를 구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태희는 조선시대 유학에 대한 경전해석학적 비판을 시도했다. 실용과 윤리를 중시한 공맹 유학이 주자를 거치며 형이상학으로 전도되었는데, 이는 주자의 자의적인 경전해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맹 유학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평등하며, 이것이 대동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여 새로운 윤리적 가치질서 확립을 시도했다. 설태희와 유사한 관점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나종석의 연구는 주자학이 공맹유학을 제한한다는 학계의 인식이 지닌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써 양자를 대조해 보길 추천한다. 나종석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유교 전통 사이의 긍정적 상관성에 주목하면서 공맹사상의 핵심을 대동사상으로 파악하고 주자학을 그런 공맹 철학을 제한하는 학문 사조로 보는 인식이 있는데, 주자학과 대동사상 사이에 존재하는 긍정적 연관성은 이런 비판의 이론적 근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3) 문명 담론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지속: 1900년대 수신(修身)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6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	서동일	유림의 만주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설립	숭실사학 45	숭실사학회
3	박태옥	개화기 지식인의 주체와 타자 인식–최익현과 유길준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4	이혜경	'직분' 개념으로 보는 유길준의 주권의 원천 –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비교를 통해 –	동양철학연구 101	동양철학연구회

문명담론은 유길준에 관한 연구가 두 편 보인다. 대개의 유길준 연구가 『서유견문』에 치중했던 것에 비해, 박태옥과 이혜경의 연구는 비교 연구다. 박태옥은 최익현과 유길준의 주체와 타자 인식을 다뤘고, 이혜경은 서양 개념어의 번역과 수용에 나타난 일종의 굴절양상을 후쿠자와와 비교를 통해 밝혔다. 서세동점의 시기에 서구와 일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문명론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위정척사론자와 문명론자의 타자 인식이 극명하게 나뉨은 주지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비교연구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혜경은 서양에서 전래된 개념의 번역 과정에서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선택적으로 전유된 데 착목하여 유길준의 문명담론이 지닌 한계가 예비되었음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방법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1900년대를 전후하여 발간된 수신교과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다. 차미란의 발표는 이들 수신교과서가 서양의 윤리학을 수용하면서도 유교윤리가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당시 교과서 편찬의 주체가 일본에서 파견한 관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필자가 지적한 수신교과서의 유교윤리 한계 또한 이미 예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동일의 연구는 신흥무관학교에 치중한 것이긴 하나, 이상룡과 김대락 등 만주로 건너간 유림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상황을 감안할 때, 눈여겨 볼 지점이 적지 않다. 이들의 사상적 전환과정, 서구 '근대'를 수용한 방식, 그리고 공화주의 이념을 유교와 어떻게 접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세정	조선시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조선시대 양명학 일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홍성덕	탈유교사회 유림 네트워크 분석 시론	태동고전연구 4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김세서리아	『자기록』의 유가경전 언어 인용 양상을 통해 본 조선여성의 지식	한국여성철학 33	한국여성철학회
4	백민정	최익한의 다산학 이해와 그 의미	다산학 36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기타 연구는 4편으로, 김세정의 조선시대 양명학 연구사 정리, 홍성덕의 유림 네트워크 분석, 김세서리아의 『자기록』과 조선여성의 지식, 백민정의 다산학에 대한 최익한의 이해이다. 김세정은 지난 해, 한국 양명학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현대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의 신지평」이라는 연구성과를 학계에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그 후속 작업이다. 근대로 전환하면서 인쇄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유림의 지역적 활동도 증대되었다. 한국 근대 유학의 학파적 분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홍성덕의 유림 네트워크 분석은 시의적이며 방법론적으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교문화의 영향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탈유교사회'라는 규정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김세서리아는 오랫동안 한국 유교 전통에서 여성의 인식과 태도 및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여기서는 『자기록』에 인용된 유가 경전을 분석하여, 전통시대 여성들의 독서지형과 지식 산출의 특징을 밝혔다.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학운동에 대한 연구와 달리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의 조선연구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다. 대다수 월북하였

거나 자료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은 탓이다. 최익한의 다산학 이해와 의미를 분석한 백민정의 연구는 한국 근대 유학은 물론이고 통일 후 한국 철학사 서술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학술적 논변이 한 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1892년부터 1900년까지 8년 가량 이어진 논변의 결과였다. 주자학과 율곡학, 낙론의 학통을 계승하고 학문에 돈독했던 신득구는 학계에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문제는 가볍지 않다는 게 최영성의 판단이다.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의 성리설과 한국철학사에서의 의미」는 신득구와 송병선 사이에 일어난 논변의 배경과 핵심을 요약하면서, 신득구가 제기한, "'하늘은 순선무악한 존재가 아니다', '하늘도 사(私)와 악(惡)이 있다'는 말은 결국 하늘의 절대성을 허무는 것이요, 진리의 절대성에 강한 회의(懷疑)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나 부정은 인간을 도덕률의 강한 속박으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빙자한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하게 한다. 한 마디로 '근대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전제한 바, 당시 여러 학파의 논쟁이 격렬했던 심의 본령, 명덕의 주리·주기 문제를 아우르는 심설논쟁에 관심조차 없었던 신득구가 『천설』과 『천인변』을 저술한 배경이, 동방오현으로 불리는 조광조·이황·이이·김장생·송시열의 언론을 모아 『근사속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율곡의 "하늘에는 혈육의 기가 없기 때문에 도심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혈육의 형체가 있으므로 인심을 발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에 대해, "추위·더위·재앙·상서가 그 바름을 얻지 못한 것은, 하늘에 있어서 위태로움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사람에게 비교하여 말한다면 '인심의 흐름'이라 할 만하다."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이는 철저히 경전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특히 『천인변』에서 ““하늘에 대해서는 인심과 도심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다만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에도 인심의 흐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이 완곡한 표현에서 자연의 현상을 오랜 시간 천리의 유행으로 여겼던 유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천도와 인심의 구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나뉨 등 인간관에 이르기까지 철옹성과 같은 개념의 의미망이 중첩되어 있음을 절감한다. 신득구는 자신의 회의에 대한 해답을 다시 경전에서 찾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진 않았다. 주자 언론의 동이나 율곡이 나눈 문답의 비유적 문제 등 신득구의 회의는 결국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에서 비롯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하나의 개념의 서로 다른 의미망에 갇혀 자기와 다른 해석과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던 폐쇄적 학문 풍토가 낳은 희생이다. 무엇보다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를 근대성으로 연결지어 평가하려면 추위·더위·재앙·상서의 자연현상을 염두에 둔 ‘자연천’에 조심스럽게 국한하지 않고, ‘이법천’ 또는 ‘인격천’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나 부정으로 나아갔어야 하지 않을까.

5. 평가와 전망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 근대 유교 연구의 특징과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 분화가 가속화된 성리학 학파별 연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경전해석학적 방법론이 자주 활용된다. 『사서』와 『역경』에 집중된 연구 풍토에서 한국 춘추학 연구에 일보를 내딛었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이처럼 다양한 학파의 분화라는 한국 근대 유학사의 특징에 비해, 학파간 비교연구가 본격화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은 학파 문인 집단에 대한 일정 수준의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할 듯하다.

둘째, 지역별 유림 공론장에 이어 네트워크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는 학파 문인 집단의 상호 교류 양상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고 학파간 진행된 논변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할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유교개혁론이나 문명담론 연구가 인물이나 방법론 양쪽으로 다양화되었다. 유교종교화하면 이병헌이 주도한 공교운동이 대표적이지만, 이은선의 발표처럼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이기의 신인의식이나 진교 논의, 박장현의 한글 대중화와 유교개혁, 설태희의 유교복원론 등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넷째, 한국 근대 유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만주에서 활동한 유림과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의 유교 이해를 다룬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념적 자기규율과 분단으로 인한 연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 유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남북간 사상적 격절을 메워나가며, 통일 한국철학사 서술을 예비하기 위해서도 학계의 관심과 활발한 후속 연구가 연잇기를 기대한다.